

# 3월 양돈경기 기대해 볼 만



정 호 품  
(본회 지도부장)

## 1. 머리말

설 명절도 지났고 매기는 당분간 위축될 것이므로 시세도 하향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최근의 상황은 예상외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요즘 큰 관심사는 수출장려금(두당 만원) 관계로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일 것인 즉, 생산농가는 3월 20일까지 수출단지나 조합과 계약체결을 함으로써 수출돈에 대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93년) 수출업체와 생산농가간에 이루어졌던 계약체계를 올해부터는 중간에 수출단지나 조합을 개입시킴으로써 수출에 대한 행정의 체계를 원활히 하자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표됨과 조속한 기일(3월 20일)내에 계약 체결 등의 기반을 조성하려니 양측가들은 어디와 계약을 해야 할 것인지, 조합과 계약을 하면 두당 8천원밖에 안되는 점과 수출단지의 조성을 서둘러야 하는 애로점이 대두되고 있다.

15호 이상의 농가로 구성하여 2만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97년 4만두, 2,000년까지 6만두). 또한 전산

시스템 도입 및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동일한 사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출단지는 향후 5년간의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수출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농림수산부는 종합검토하여 전국에 12개소 이상을 지정한다는 것이며, 전산시스템이 미약한 단지는 예비수출단지로 지정하여 차후에 정식 지정의 절차를 밟게 할 것으로 보인다.

## 2. 대일수출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양돈은 세계적으로 좋은 돼지고기 수출시장인 일본을 겨냥한 수출계획일 수밖에 없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과거에도 덴마크나 대만처럼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일본에 수출을 해왔던 것이며 '93년에도 1만 1천톤을 수출한 것은 그나마 수출장려금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의 일본시장은 어떠한가? 심하게 말하자면 일본이 한국에다 수출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일본

<표1> 연도별 대일 돼지고기 수출동향

		'88	'89	'90	'91	'92	'93
수출 실적	수량(톤)	7,936	12,277	5,877	3,564	8,493	11,329
	(전년대비)	(252%)	(155)	(48)	(61)	(233)	(134)
	냉장육	165	46	315	769	829	1,422
	냉동육	7,771	12,231	5,562	2,795	7,664	9,907
	금액(백만\$)	40.7	57.6	31.7	21.3	43.8	64.5
수출업체수		22	14	22	12	18	22
수입량(톤)		-	-	3,782	17,708	-	-
국내가격(원/kg)		1,864	1,614	2,584	2,743	2,023	2,151

주)수출검역실적임

의 양돈시세가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엔고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 수입되고 있으므로 돈육소비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것인 바 쇠고기가 수입개방의 문로가 넓혀지면 한우 사육농가는 문론이러니와 돼지나 닭에도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특히나 한국사람은 돼지고기보다는 쇠고기 선호가 유별하므로 앞으로의 축산업은 개방에 비례하여 어려운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으리라 사료된다.

### 3. 봄철의 양돈경기 기대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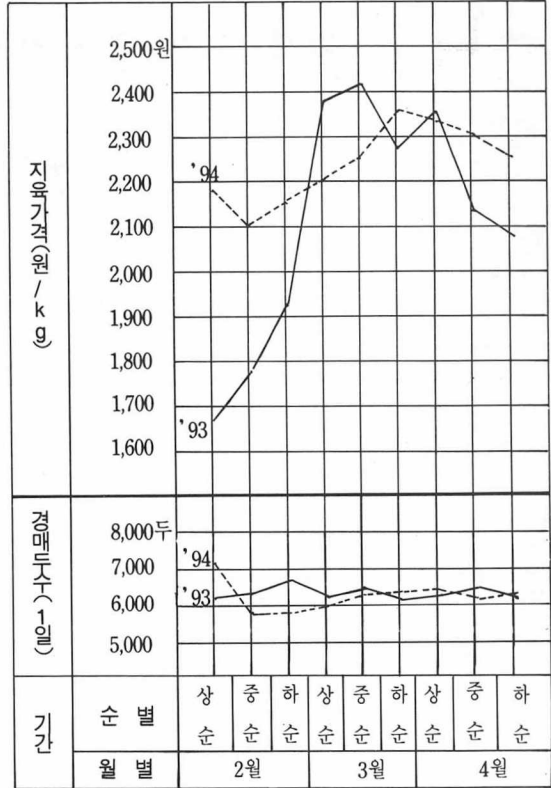
구정전(2/1~2/8)의 서울 3개 도매시장에 경매된 물량은 하루 평균 7천두(7,051두)였고 지육 kg당 단가는 2,200원 정도(2,181원)로 마감됐다.

2월 중순인 요즘, 예상대로 시세가 툭 떨어졌으나 곧이어 회복국면으로 돌입하여가고 있음을 보며 도축장에서 돼지가 안들어 온다고 계통출하의 독려를 요청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농가들의 동향을 살펴보니 매물이 없다는 얘기가 다. 요즘은 매물돈은 8월 출산돈이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93년 4월 수태시킨 것이다. 수태시기나 출산시기

<그림1> 경매두수 및 가격 동향

(서울 3개 도매시장 기준)



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며, 한편 통계수치(12월 통계) 상에도 4~6개월령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구정전에 조기 출하한 일시적 현상이라 판단되고 매물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끝에는 정육점들이 사재기물량의 처치로 1주일 정도는 구매가 뜸해지는 법인데 금년은 반대로 정육점들의 물량이 소진된 상태이며 따라서 구매는 연속되는데 반해 매물이 줄어든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매년 2월은 경기가 저조한 달로 여겼던 것이 금년은 구정후에도 계속하여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2월을 넘기면 3월은 회복되는 달로 볼 때 금년은 서두부터 경기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1>을 참조 바란다.